

<올림픽>中 핸드볼 강재원 감독 "이기면 역적되는데"(종합)

송고시간 | 2008-08-18 19:09











박성민 기자

<올림픽>中 핸드볼 강재원 감독 "이기면 역적되는데"(종합)

(베이징=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강재원(44) 중국 여자핸드볼 대표팀 감독은 한국과 2008 베이징올림픽 8강전을 앞 두고 걱정이 있다.

중국이 한국을 이기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결전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한국과 러시아의 남자핸드볼 조별리그 최종전을 보기 위해 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관을 찾 은 강재원 감독은 내일 경기 전망을 해달라'는 질문에 "이기면 한국에서는 완전히 역적으로 몰릴 텐데..."라고 말했다.

1980년대 최고의 핸드볼 스타 플레이어 출신으로 서울올림픽 은메달을 따낸 이듬해 국제핸드볼연맹(IHF) '올해의 선수'에 뽑 힌 뒤 스위스 그라스호퍼에 입단, 11년 간 스위스 리그를 호령했 던 강재원 감독은 지도자로도 성공했다.

스위스 빈터투어를 거쳐 일본 다이도스틸에서 리그 무패 우승 및 전관왕 등을 달성한 뒤 지난해 5월 중국 여자대표팀 감독으로 스 카우트됐다.

처음 각성(省)에서 잘하는 선수 31명을 뽑아 팀을 꾸렸다. 워낙 선수층이 두텁다 보니 체격과 스피드가 좋은 선수를 골랐지만 문제는 기본기였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핸드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기본적인 기량이 완성돼 있지 않은 선수가 태반이었다. 강 감독 이 "100점 만점으로 팀 전력을 매긴다고 할 때 처음 중국을 맡았을 때는 10점 밖에 안됐다"고 회상했다.

아시아 무대에서 중국이 한국과 17차례 만나 1승16패의 압도적인 열세에 놓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강 감독은 그런 팀을 1년5개월 만에 60점 정도로 만들어놓았다고 했다. 이번 올림픽 조별리그 A조에서 중국은 1승3패 로 탈락위기에 몰렸지만 최종전에서 유럽의 강호 프랑스를 21-18로 누르며 조 3위로 8강에 올랐다. 여기까지만 해도 강재원 감독은 맡은 역할의 '120%'를 달성한 셈이다.

한국과 중국의 전력을 비교해달라고 하자 강 감독은 "7대 3 정도로 한국이 앞서 있다. 경기 하는 것을 보니 멤버도 좋고 전력도 아테네 대회 때보다 오히려 낫다"고 답한 뒤 "경기를 앞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확실하다. 중국이 한국을 이기기 는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이기면 역적이 될텐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방송사 해설위원을 맡기도 했던 강 감독은 4년 전 아테네에서 한국 여자핸드볼의 감동의 은메달을 현장에서 목격한 증 인. 당시 감동 실화를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 카메오 출연을 하기도 했다.

강재원 감독은 이달 말로 계약이 끝난다. 대회가 끝나면 곧바로 귀국할 계획이다.

오랜 해외생활을 했고 2005년 다이도스틸 감독으로 갔으니 한국을 떠난 지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을 떠 돌고 싶지 않은 바람이 간절하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한국에 돌아오면 강 감독은 자신이 2001년 설립한 스포츠마케팅 및 선수 에이전시 회사인 'K스포츠' 운영에 일단 힘을 기울일 계획. 이 회사를 통해 강 감독은 남자 대표팀의 황보성일(그라스호퍼), 한경태(오트마), 백원철, 이재우(이상 다이 도스틸), 수많은 핸드볼 선수를 유럽 또는 일본에 진출시켰다.

강 감독은 국내에서도 지도자로 성공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그는 "새로운 실업팀이 생기면 감독을 맡아볼 생각도 있 다. 핸드볼 발전을 위해 대기업이 좋은 팀을 계속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in76@yna.co.kr



<올림픽> 한국 `10-10' 눈앞..아시아 2위 유력

'무한도전'팀 핸드볼 중계에 시청률 수직상승

<올림픽> 중국 女핸드볼 강재원 감독 "이기면 안되는데"

-올림픽-<핸드볼> 남자대표, 러시아에 패..최소 3위

<올림픽>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형제 · 자매 선수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8/18 19:09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 결국 우크라에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뉴스 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유튜브채널











sns **f**





뭐하고 놀까? ## 👺 →

5 <u></u> 38 힐 예정"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3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 60 대병원 자원봉사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1

댓글 많은 뉴스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

출판물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뉴스+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클럽 #흥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